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2007년도 표어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높은 자리에서 낮은 행동

(시편 58:1-11)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시편 58편은 불의한 통치자에 관한 시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사회를 다스리는 이들이 들어야 할 예언적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중간지도자입니다. 시인은 불의를 심판해 달라고 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시의 표제는 다윗의 미담 시(교훈시)라고 밝히고 있으나 다윗의 시가 아니라고 하는 이들이 있고, 다윗의 시로 인정하는 이들 중에도, 연대적 차이를 말하는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란 때 쓴 시라고도 하고 사울에게 박해를 당할 때 쓴 시라고도 합니다.

### 1. 불의한 통치자(1-5절)

“통치자들이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나 인자들이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나”(1절)

대부분의 시편은 기원이나 찬양으로 시작하지만 이 시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또 대부분의 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이 시는 인자들을 부릅니다. 인자에 대한 번역은 매우 까다로워서 여러 번역이 있는데, 현대 역본들은 ‘신들’, ‘신처럼 높임을 받는 통치자’로 번역합니다. 구약에서는 인생들 가운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신들로 부릅니다(시 82:1, 신 32:8-9).

여기서는 엘로힘과 엘렘이 함께 나오면서 땅 위에 권세 있는 사람들, 재판관들, 현센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공의가 흔들릴 때 지도자들이 바로 말을 해야 하는데 이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약한 자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지만 땅위의 재판관들과 관리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극심한 시련을 당하며 성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외면하고 침묵합니다. 아무도 공의를 행하도록 권면하거나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4절).

세상의 통치자들은 말을 해야 할 때 배어리가 되고, 들어야 할 때 귀머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 악이 있습니다. 약한 지도자들은 백성을 핍박합니다. 폭력으로 정의를 재고, 힘의 논리를 따라 모든 판단을 합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악한 자들입니다(3절). 어쩌면 다윗은 그 마음에 압살롬이나 혹은 사울을 두고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5). 이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요청됩니다.

시편 58편에는 악인의 모습이 독특하게 표현됩니다. 그들은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서부터 결길로 나가는 존재이며 독을 품은 독사로 표현됩니다. 그들은 뱀처럼 음흉하고 교활할 뿐 아니라 독사처럼 독을 품고 다닙니다. 그들의 말에는 독이 묻어 있습니다. 험방, 거짓 고발, 저주, 중상모략, 비방과 헐뜯는 말을 합니다.

‘귀머거리 독사’는 애굽의 코브라라고도 하지만 뱀 또는 용으로도 번역됩니다. 뱀은 본래 잘 들지 못하여 술사의 피리소리보다는 피리의 동작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악을 금하는 사람이 악을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네가 번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불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번역하는 족

속임이라”(겔:12:2). “내가 많은 것을 불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사 42:20).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같이 악한 자들에게는 애원과 호소가 소용 없습니다.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 2. 악인에 대항하는 기도(6-9절)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6절).

시인은 악인과 그들의 악이 하나님에 의해 정복될 것을 기도합니다. 시인은 악인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이것은 개인적 승리를 구한 것이 아니고 모든 악의 권세가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젊은 사자의 입에서 어금니를 꺾어버리듯, 강포를 달아주는 불의한 자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빨을 부수어 무력화 시킬 것을 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에 의해 패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 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7절).

다윗은 가파른 언덕에서 흐르는 물이 급히 사라지듯 위세를 떨치던 행악자들을 일시에 소멸하게 해달라고, 당당하던 행악자들이 힘없이 패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핏덩어리로 쏘아져 버리고 마는 유산된 태아처럼 타락한 악인의 계획을 사전에 무산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8절)

### 3. 하나님의 심판(10-11절)

10절에서 시의 분위기는 갑자기 전도되어 신앙인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승리하고 기뻐하는 의인과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악인의 모습과 몹시 대조적입니다.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의인이 기뻐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보복에 대한 만족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된 것에 대한 만족감의 표현입니다.

“진실로 의인에게 값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11절).

의인은 자신이 뿌린 씨앗이 자라 열매 맺은 것을 이제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열매는 세상의 행복이나 권세나 부가 아닙니다. 의인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제이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11절).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진실한 신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진실한 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불의한 것에 대해 잠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원수는 내가 갚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계속되는 성경통독사경회

## 7월31(화)까지 오전 5시30분 본당에서

홍해작전이 끝난 후에도 성경통독사경회는 7월 31일(화)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에는 새벽기도회 시간인 5시30분부터 6시까지 매일 18쪽씩, 이사야서 19장까지 통독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연초에 배부한 <성경통독카드>의 통독범위와 일치하므로 이때부터 개인적으로 매일 통독을 계속하면 모든 성도들이 연말에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성경 일천독 대장정>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4행시 응모마감은 6월25일(월) 새벽까지이며 마지막날인 6월 25일(월) 새벽에는 홍해작전 승전을 기념하는 떡잔치가 8층에 준비된다.

2007년 승전감사예배와 4행시 시상은 7월1일(주) 찬양예배시 있을 예정이다.

요일	화	수	목	금	토	주일
날짜	6/26	27	28	29	30	7월1일
성경범위	삿1~삿8	삿9~삿19	삿20~삼상5	삼상6~삼상15	삼상16~삼상25	삼상26~삼하6
담당교역자	이규정 윤영국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이태훈 이규정 윤영국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이태훈 이규정	윤영국 한상은 서명철

## 청년부 특강

### 크리스천 청년의 결혼과 데이트

#### 오늘 3시20분 601호, 강사: 홍인중 교수

청년부에서는 오늘 청년부 집회시간(3시 20분)에 601호에서 '크리스천 청년의 결혼과 데이트'란 주제로 장로회신학대학교 홍인중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특강을 실시한다.

홍인중 교수는 실천신학과 목회상담학을 전공하고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및 학생생활상담소장을 맡고 계시며 가족치료, 가정사역의 전문가다.

이번 특강은 설문조사를 거쳐 청년들의 요구를 수

용해 마련한 것으로, 청년의 때에 성경적 만남과 결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이혼을 높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결혼과 가족을 꿈꾸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부는 앞으로도 결혼 관련 특강뿐만 아니라 직업관련 특강 등 기독교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마련할 계획이다. 젊은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 순례자 캠페인

### - 쓰레기 어떻게 할까요 -

주일 저녁 찬양예배를 마친 후 엘리베이터가 8층으로 올라갑니다. 경비집사님들이 바퀴가 달린 큰 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바로 주일 하루 동안 우리가 먹은 음식의 잔반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8층 식당(만나홀)에서만 각종 음식물을 드시도록 방침을 정한바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부스러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해충(개미, 바퀴벌레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방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실에서 음식을 먹고 그 쓰레기가 그 방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 더운 여름철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귀여운 자녀들이 해충에게 물리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실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교회는 금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녀와 나 자신의 건강과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소중한 자원은 바로 나의 자녀들이 앞으로 사용하여야 할 자원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잘못으로 그들이 사용할 것이 없다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하고 나와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깨끗한 교회환경을 위해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로, 부흥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를 다짐하며 20일간 힘차게 진군한 홍해작전이 벌써 최종 승리를 목전에 두게 됐다. 1부 기도사경회, 2부 부흥사경회에 이어 지난 주일부터는 성경통독 사경회가 진행되고 있다.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 흥해를 가르고, 부흥의 주인공이 되어 흥해를 통과한 뒤, 이제 이 기적의 현장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성경통독 사경회에 임하고 있다. 새벽을 깨우는 교역자들의 거침없는 쾌속 낭독을 눈과 마음으로 따라가며 이어진 성경통독 사경회는 예년 추석이나 설에 한 두 번씩 이어간 '말씀의 행진'을 홍해작전을 통해 집중적으로 밀도 높게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올해 초부터 최소 1,000명 이상의 성도가 성경을 1독하는 '성경 일 천 독 대장정'을 결행하여 말씀 읽기에 각별한 힘을 쏟아오던 터였다.

처음에 뜨거운 각오로 일 천 독 대장정에 동참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던 자들은 이번 사경

회로 만회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이번 홍해작전을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한 성도는 "교회 사경 일 천 독 대장정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올해는 기필코 성경을 한 번 통독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평일에 3장, 주일에 5장을 꾸준히 읽는다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동안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이번 홍해작전에서 마침 못 읽은 부분을 읽혀주시니 아침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통독사경회는 홍해작전이 끝난 후에도 이어져 7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때가 되면 하루 3장을 읽어야 하는 성경1독 속도와 맞아 떨어지게 된다.

해의 출타 중인 이종운 위임목사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함께 풍성한 말씀 잔치로 승리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홍해작전은 내일 대대원의 막을 내리고 다음 주일 승전 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편집부)

호국의 달 특별 기고문

# 조국을 위해 기도의 파수꾼이 되자!

진돈 장로 (10교구)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북괴군 최고 사령부는 “남반부에서 북침이 개시되었다. 전면 전쟁이 불가피하다. 남반부 국방군의 북침을 격퇴하고 남한을 해방시키자”는 거짓말로 기습 남침하였다.

김일성의 전략 목표는 소련의 세계적화전략에 편승하여 한반도를 공산통일하기 위하여 서울을 최단 시간 내 점령, 그 여세를 한수 이남으로 진격, 부산을 8월 15일 이전에 점령하여, 작전을 종결하고 8.15 경축 행사를 부산에서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세워 놓았던 것이었다.



기습 남침 보고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신속히 주일 미군 사령관 맥아더 원수에게 알리고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고, 당시 미국 시간 6월 25일(주일) UN안보리가 긴급 소집되어, 몇 시간의 토의 끝에 이는 “평화의 파괴 행위”로 규정, 즉각 대응하기로 가결했다. 상임이사국(소련)의 사고 불참으로 극적인 UN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즉시 맥아더 장군을 UN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7월 15일 첫 작전부대인 미24사단 스미스부대가 참전하게 되었으며 계속 우방 전투병 파견 16개국과 의료 지원국 5개국 이 한국으로 달려와 우리를 도왔다.

백척간두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과정들의 연속이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대하 20:15)”, 말씀의 현현이요, 대통령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울부짖는

회개와 기도의 응답이었다.

피난길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는 간절했다.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늙은 목숨을 조국 통일의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불쌍한 우리 민족을 굶어 살피사, 통일과 재회의 기쁨으로 안겨 주시고 영세 자유와 평강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의 보잘것 없는 영혼을 조국 통일 제단에 바칠 터이니 원하실

**“저의 보잘것 없는 영혼을  
조국 통일 제단에 바칠 터이니  
원하실 때 아버지 곁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때 아버지 곁으로 거두어 주옵소서”(6.25와 이승만 대통령 중에서)라고 기도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국난 극복을 위한 기도를 끊지 않았

다. 피난길 한경직 목사는 대한 기독교 구국회를 결성, 국난 극복을 위한 기도회를 열어, 피난 중에 목숨을 걸고 드린 예배는 더욱 뜨거웠고 기도는 간절했다.

부산 초량교회에서는 한상동 목사를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축복을 받아 저주와 진노를 면한다”며 과거 기독교인들의 신사

참배와 이로 인한 교계의 교권 다툼으로 인한 한국 교회의 죄과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였다. 7일간 밤낮 없이 회개 기도가 있던 후 3일 만에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이루어졌고, 9월 27일 89일간 공산 치하에서 신음하던 서울은 자유를 찾았다. 9월 29일 12:00 맥아더 원수는 서울을 대한민국 정부에 넘기는 환도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의 상징인 UN군은 한국의 수도를 다시 찾게 하셨습니다(이하생략)”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환도식



을 마쳤다.

1951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UN군사령관에게 위임함으로써 국군 및 UN군은 단일사령부의 지휘 아래 최상의 효율적 방어체계를 구축,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아 있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어언 57년 전 민족상잔의 통탄을 되새기며, 자유민주주의(특히 미국)들과 유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서, 폭군 김정일의 오판을 물리치고 이 나라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친북·반미 좌파들의 악령들에게 여호와 낫시를 증거하는 우리나라 되기를 바라며 우리모두 하나되고 한 마음되어 졸지않는 충성된 파수꾼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마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우유를 먹고 우리 유선이 평안한 잠을 자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작될 흥해 작전에 우리 가족 모두 무사히 건너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된 우리 가족의 2007년 흥해 작전, 작년에는 유선이를 낳고 모유를 먹이면서 걸린 유선염 때문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 했는데 올해는 온 가족이 지금까지 무사히 흥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아침에 어린 유선이를 데리고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 간다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구 울어대는 알람 소리에 눈비비고 일어나는 유선 아빠,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유선이 옷을 입히고 서둘러 보지만 겨우 시간을 맞추거나 지각을 하고, 교회에 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유선이가 칭얼거리면 함께 흥해를 건너는 분들에게 어찌나 죄송한지요. 그러나 우여곡절 속에 흥해를 무사히 건너고 가는 길은 남모를 기쁨과 감사로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흥해작전을 하면서는 가정에서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북한 동포를

2007 흥해작전

## 우리가족의 흥해작전!



위해 평소에 잘 못했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듯 합니다.

기도 사경회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부흥 사경회에서는 크리스찬의 호연지기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 하고 있는 성경 통독은 년 초에 시작해 몇 달 읽다 잠시 휴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성경 읽기에 다시 열심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근을 다니며 포켓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한 유선 아빠, 시간 날 때 마다 유선이와 함께 성경책을 읽고, 저녁 기도 시간에 더욱 간절히 기도 하는 우리 가족은 흥해작전을 통해 거룩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린 유선이에게 흥해 작전의 승전 체험을 평생 가르치며 실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마다 매일 보는 유아부 친구인 해운이와 언니 해라. 유선이와 끝까지 손잡고 흥해를 건너길 기도합니다.

이수정 성도(9교구)

이종운 목사 특회 사진

#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드리는 두 번째 편지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쉽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집회  
 를 은혜롭게 마치고 지난 18일(월) 독일 뮌헨을 거쳐  
 이곳 헝가리 부다페  
 스트에 19일(화)에 도  
 착하였습니다. 비행기  
 연결이 잘못되어 짐  
 은 하루 늦게 도착하  
 였지만 로잔 지도자  
 회의에는 지장 없이  
 참여하고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 보람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 2008년을 '성경의 해'로 선포 -헝가리 개혁신교회-

### 올해가 우리교회의 '성경의 해'가 되기를...

2010년 10월16일부터 25일까지 남아공의 케이프  
 타운에서 열리는 제3차 세계 로잔대회를 준비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3년 후의 대회가 200여 개국에서 5  
 천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참여하게 될 대형집회인  
 고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60여 개국에서 200  
 여명의 지도자들이 부다페스트에 모여 함께 기도와  
 준비를 하는 회의를 가진 것입니다.

헝가리는 로마 카톨릭이 60%, 개혁신교회가 20%  
 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회 분위기는 다분히 개혁신교  
 회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머무는 호  
 텔 앞 광장은 칼빈 스  
 케어라고 불리는데,  
 이번 회의가 열리고  
 있는 카를리 가스파  
 르 개혁신교회는 공  
 산통치 하에서도 문  
 을 열었고 전통을 자  
 랑하는 신학교로 우리 KIMCHI 동문 교수가 두 분이  
 나 있는 곳입니다.

내년(2008년)을 '성경의 해'로 정하고 헝가리 개  
 혁신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배우는 해로  
 선포했다는 해외총무 타마스 목사의 말을 듣고 우  
 리교회 성경암송 필사본과 성경 천 독 읽기 운동을  
 소개해드렸더니 필사본을 한 권 보내주면 전시하고  
 성경 일 천 독 운동을 펼쳐 자기나라 지도를 걸고 이  
 름을 붙이는 작업을 교회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24일)에 헝가리에서 가장 큰 교회  
 로 알려진 파사페외페르 개혁신교회에서 두 번 설교를  
 하고 25일(월) 프랑스 파리를 거쳐 Aix in Province 개  
 혁신교회를 방문하고 귀국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교회에서 예배  
 를 드리게 될 터이니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여행이지  
 만 피곤치 않도록 계속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홍해작전의 성경통독사경회에 참여하는 이  
 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우리교회의 '성경의  
 해' (Year of Bible)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계신 목사님들과 기도로 앞장서서 끌고  
 가시는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  
 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목사 이종운 드립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천국시민양성-살롬경로대학

# 주님의 꿈을 꾸는 자!

이은희권사(살롬경로대학 교사)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  
는 꿈을 꾸며'(요엘 2:28')

비록 몸은 쇠약해 졌으나 주님 주신 꿈을 꾸고 싶  
 어 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살  
 롬 경로 대학의 전반기 마지막 수업을 연신내에 있는  
 팀 수양관에서 가졌다.

주님의 영이 서울 교회를 통해 부어지기 소망하며  
 지난 4월 12일부터 시작  
 했던 살롬 경로 대학의 이  
 번 야외 수업은 100 여명  
 의 어르신들과 교사들이  
 함께 한 감사와 기쁨의 축  
 제였다.

비가 오겠다면 일기 예  
 보 와는 달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좋은 날씨를 우리



에게 허락하심이 첫 번째 감사 제목이 되었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숲이 우거진 벤치에 둘러 앉아 예배드  
 림과 맞난 돼지 불고기 바베큐를 구워 먹으며 가진  
 야외 벤치의 만찬은 우리의 또 다른 감사 제목이 되  
 었다.

식사 시간 후 팀별로 가진 장기 자랑 시간을 통해  
 부어진 기쁨은 주님의 꿈을 꾸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  
 중의 축복이었다. 찬양반 선생님의 신명나는 민요에  
 따른 멋진 춤사위를 보이신 어르신들은 이 축제의 시  
 간이 천국의 잔치인 양 즐기고 또 즐겼다.

집으로 돌아가기를 아  
 쉬워하며 다음 학기를 기  
 약하는 경로 대학 어르신  
 들과 우리 교사들은 이 귀  
 한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  
 께서 노년에 허락하신 사  
 명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  
 는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  
 에 감사드렸다.

### 등정

- 개업 : 김정훈 집사 김희경집사(14교구) - 중식당 '마우'  
Tel : 400-1624
- 주간 식당 봉사 : 빌립선교회(6.24) 안드레선교회(7.1)
- 금주의 식사 : 노송성 장로 이영옥권사 가정  
- 자녀의 결혼을 감사하며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7 홍해작전(6/6-25) 승전하도록
2. 성경 일천독 대장정과 100만인 전도운동 성취되도록
3. 이종운 목사 해의 집회 인도와 회의 참여 열매 있도록
4.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국가, 사회 되도록

###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